

카리스마는 성경적 리더십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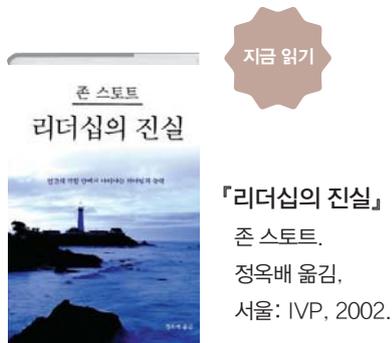
이춘성 (고려신학대학원 기독교윤리 박사과정)



능력이 있어야 리더가 될 수 있다?

초등학교시절 유난히 내성적이고 수줍음을 많이 탔던 나는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을 주저 하였다. 마음속으로는 반장도 회장도 해보고 싶었지만 겁이 나서 손을 들지 못했다. 성적이나 가정환경에서도 그리 주목 받지 못했기에 앞으로도 그럴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 했다. 그런데 초등학교 졸업을 2주밖에 남

겨두지 않은 2월 어느 날 선생님의 지명으로 반장이 되었다. 매월 반장과 부반장을 돌아 가면서하던 당시에 초등학교 6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반장을 드디어 졸업 직전에 하게 된 것이다. 마치 내 인생의 다시 못 올 화려한 시간처럼 생각했던 것 같다. 소위 완장을 차던 그 날, 난 바로 내가 가진 권력을 확인하려 하였다.



『리더십의 진실』

존 스토틀.
정옥배 옮김.
서울: IVP, 2002.

보통 졸업을 얼마 남기지 않은 2월은 학생들에게는 휴식 기간이다. 그런데 난 이런 꼴을 볼 수 없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돈된 면학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다. 무엇보다도 나를 임명해준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싶었다. 떠드는 아이 몇 명이 내 눈에 들어왔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조용히 하라고 명령했다. 여전히 떠드는 친구들을 향해 칠판에 이름을 적겠다고 겁을 주었다. 이게 뭐 그리 대단한 것이냐고 생각하겠지만 당시에는 선생님의 체벌이 있었고, 반장에게 이름이 적힌 아이들은 예외 없이 어떤 형태로든 벌을 받아야만 했다. 그때는 여전히 군사 권력이 살아있던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었던 1988년 이었다. 아이들은 내 말을 들었고, 난 권력의 단 맛을 보았다.

내가 반장이 된 이유는 단순히 할 사람이 없거나 순서가 돌아 와서가 아니었다. 지난 1학기까지 하위권을 맴돌던 성적이 2학기에 들어서서 경천 뛰쳐 올라 반에서 1등을 차지했기 때문이었다. 부모의 사회적 능력이나, 재력도 없던 단칸방 셋방살이하는 아이는 여름방학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단번에 40등을 올라 반에서 10등 안에 들어갔다. 그런 후 기말고사에서 당당히 1등을 차지했던 것이다. 반 대표로 웅변대회에 나가 상을 탔고, 달리기 대회에 나가 상을 걸머주었다. 그러자 아이들은 내 주변으로 몰려들었고, 부잣집 아이들이 친구로 받아 주었다. 여자

아이들은 밸런타인데이에 초콜릿을 선물하였다. 난 태어나 처음으로 능력을 인정받았고, 그 결과 이것이 권력과 부러움, 인기, 돈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어린 시절 부끄러운 에피소드를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 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도 리더는 능력 있어야하며, 능력 있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도 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능력은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부모의 사회적 지휘, 재력, 혹은 탁월하게 공부하여 스스로 성취한 학벌이나 고시 합격과 같은 것을 말한다. 요즘은 인성과 성격까지도 능력으로 취급한다. 하지만 영국의 존경받는 설교자인 존 스토틀은 “능력! 그것은 술보다 더 취하게 만들고, 마약보다 더 중독성이 강하다.”라고 말하면서 기독교인 리더들이 피해야 할 것이 바로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다(『리더십의 기원』, 존 스토틀, 41). 그는 또한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능력’이 아니라 ‘약함’이라고 역설하였다. 존 스토틀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기독교적 지성과 세속 지성이 가장 결렬하게 충돌할 때는 기독교가 겸손 및 그에 따르는 온갖 연약한 점을 강조할 때이다. 세상의 지혜는 겸손이 아니라 능력에 가치를 둔다. 우리는 니체의 능력 철학에 생각보다 더 깊이 빠져 있다. 니체는 강인하고 남성적이며 억압적인 대담한 지배자 민족의 융성을 꿈꾸었다. 니체는 능력을 숭배했다. 그는 예수님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멸시했다.(존 스토틀,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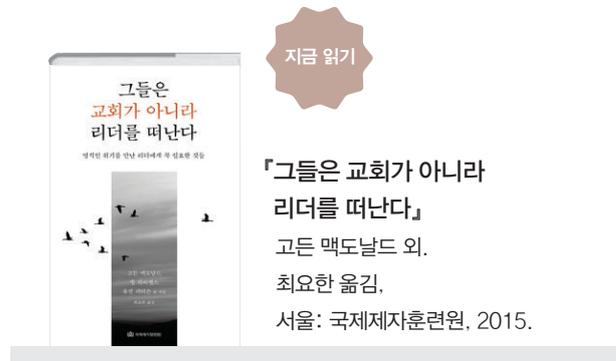
카리스마의 기원

존 스토틀의 주장과 달리 역설적이게도 기독교인들도 능력있는 지도자들을 원하는 것 같다. 단적으로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성공한 목회자의 리더십 유형이 대부분 '카리스마(χάρισμα)'라는 점이 그걸 증명한다. 사전적으로 카리스마는 '선물'이란 뜻이지만 더 정확히는 거부할 수 없는 선물이란 의미이다. 또한 카리스마는 그리스어 '카리스(χάρις)'에서 유래했다. 카리스는 성경에서 '은혜'라는 용어로 사용되지만 일반적으로는 '호의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매력(attractiveness)'이란 뜻이다. 특히 카리스는 탁월한 외모나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BDAG).

이를 종합해보면 카리스마는 몇 가지 조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는 외모와 능력, 둘째로 탁월함, 셋째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다. 그러므로 카리스마의 리더십은 주는 자의 능력이 받는 자의 것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받는 자는 잠자코 따라야 한다는 믿음을 제공한다. 이는 받는 자는 좋고 나쁨을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카리스마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해하는 카리스마는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을까?

성경은 카리스마를 은사로 번역한다. 이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으로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람이 그에 따른 어떤 답례도 하나님께 할 수 없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런 능력을 지닌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성경적인 카리스마는 일반적인 카리스마와 달리 인간의 능력과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은사(카리스마)를 받고 단지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하는 상대적으로 무능한 존재일 뿐이다. 은사를 받은 자들은 겸손 외에는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겸손은 기독교인의 대표적인 성품일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일반적인 카리스마 리더십은 기원에서부터 비성경적



지금 읽기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

고든 맥도날드 외.

최요한 옮김.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5.

인 것이다.

초대 교회의 리더들(베드로, 바울)

위와 같은 성경적 '카리스'와 '카리스마'에 대한 이해는 초대 교회의 리더들의 모습에서 잘 나타난다. 먼저 베드로의 예를 들어 보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며,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불렸던 대표적인 지도자이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후 베드로는 성전 문 앞에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치료했으며(3장),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다비다(9장)를 살렸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 이후에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은사를 가진 베드로는 이것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였을까?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행 3장 6절). 이 말에는 '예수'라는 당시 흔한 이름 자체에 부적이거나 주문과 같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또한 '예수'라 하는 신적인 존재에게 신들림을 당해 능력을 행한다는 뜻도 아니다.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이 오직 우리를 모든 죄와 고통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한다는 것을 선

성경이 말하는 리더는
카리스마가 아닌 평범함의 의미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를 지키는 자이다.
그 평범함이란
무기력, 무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빌려 쓰는 태도이다.

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아무런 능력도 효과도 없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베드로의 태도는 로마 군인인 백부장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통해 베드로를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는 고넬료는 베드로가 문을 열고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마치 천사 같은 특별한 존재를 만난 것처럼 바닥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을 일으켜 세워 눈을 마주하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도 사람이다.”(행 10장 26절)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경건한 이방인들과도 함께 밥 먹기를 꺼려했었다. 그런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들과 한 식탁에 둘러 앉아 밥을 나누고, 영적인 밥인 복음을 나누는 장면을 상상해 보라. “나도 사람이다.”라는 말에는 어떤 특권의식이나 능력의 과시도 없었다.

이러한 모습은 누구보다도 유대인으로서의 특권의식과 능력을 과시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사울, 그러나 후에 기독교인이 된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2차 선교여행 도중 바울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다. 그녀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바울 일행을 여러 날 동안 따라다니며 외쳤다. 바울은 이 때문에 ‘괴로워’-다른 뜻은 ‘귀찮음’-하였다(행16:17,18). 그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괴로워했다. 첫째는 귀신의 권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증명되는 것에 대한 부당함, 둘째는 귀신의 증언을 이용하여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자하는 교만이였다. 이 때문에 귀찮고 괴로웠던 것이다. 결국 더 이상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낸다. 외부의 거짓 능력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자하는 유혹을 물리친 것이다. 이렇듯 기독교 지도자는 어떠한 능력도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불필요한 유혹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길 즐겨한다.

존 스토트는 이러한 바울의 평범한 자로서의 자기 인식이 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 고린도전서 4장 13절(부엌 비유)에서 극대화 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고도다.” 존 스토트는 “더러운 것”이란 쓸어 모은 쓰레기를 말하며, “찌꺼기”란 냄비를 닦아서 나온 찌꺼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둘을 종합하면 “수채나 하수도를 통해 버리는 오물”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존 스토트, 125). 존 스토트는 이 의미를 당시 사회 문화와 연결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 도시(그리스 도시) 사람들은 이교 신들이 진노했기 때문에 재앙이 온 것이라고 여겨 그 신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불쌍하고 초라한 사람들을 몇 명 끌어내어 바다에 던져 죽게 했다. 이 속죄양들은 사회의 쓰레기 혹은 찌꺼기라고 불렸다. 바울은 사실상 “우리가 바로 그렇다”고 쓰는 것이다.(존 스토틀, 125)

바울은 자신을 평범하다 못해 사회에서 쓰레기 취급 받는 가장 약한 자로 소개하고 있다. 자신과 동료들에 대해서 그토록 혹독하게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복음은 병들고, 약하며, 어리고, 무식한 죄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는 자들에게 복음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인 인물이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헤롯 아그립바 왕이다. 그는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카리스마있는 지도력을 추구한 사람이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죽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였다. 결국 그는 자신을 ‘신’이라고 부르는 열광적인 군중들의 소리를 들으며 카리스마의 정점에 이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벌레의 먹이로 던져 주었다.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지도자가 되고자했던 그는 하나님에게 아무 쓸모없는 자였던 것이다.

기독교인 리더의 평범성

이를 볼 때, 성경이 말하는 리더는 카리스마가 아닌 평범함의 의미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를 지키는 자이다. 그 평범함이란 무기력, 무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능력을 감추고 남에게 양보하는 유교식 겸손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기독교의 겸손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빌려 쓰는 태도이다. 그런 면에서 무능력이란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다. 또한 이러한 평범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능력 이전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들이다. 단지 그리스도

인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리더십의 진실은 능력과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와 상태에서 있다.

마지막으로 역사는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한 위기의 시대에 대중이 원하는 다양한 능력으로 위장한 리더십의 가면을 쓴 가짜 리더에 의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유린당하고, 고통이 가중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마치 히틀러를 선택한 독일 국민들처럼 말이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의 가장 큰 오류는 사람들이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조급함이 이러한 오류를 만든다. 그러므로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에는 신중함과 느림의 아름다움을 더욱 추구해야 한다. 아마 그러한 시대에는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말석에 앉은 자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참 리더는 평범함의 의미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젠가 특별해지기를 기대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말석에 앉아 있는 자들은 제외다. 이들은 능력도 없을 뿐더러 더 탐욕스럽기 때문이다. 내 어린 시절 2주 간의 짧은 반장 경험처럼...



글 | 이춘성

라브리(L'Abri Fellowship) 선교회에서 간사와 국제 위원(International Member)으로 청년들과 구도자들을 위해 일했으며 합동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M.Div.)와 고신대학원에서 '직업과 소명'을 주제로 연구하여 기독교 윤리학 석사(Th. M.)를 하였다. 현재 세종시에 살면서 고신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독교 윤리학 박사(Ph. D.)과정에서 '환대(Hospitality)'를 주제로 연구 중이며, 유성광명교회 협동목사이다.